

헌재,尹 국무회의록·계엄포고령 24일까지 제출 명령

대통령실 탄핵심판 서류 수취 거부...27일 변론준비기일 차질 우려 소추위원 정청래에 탄핵소추 사유 입증 계획·증거목록 제출 요구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오는 24일까지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서류 등의 수취를 거부하고 있어 오는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헌재는 18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전날(17일) 수명(受命)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윤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절차가 준수됐는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계엄선포와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에 앞서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에 시작해 22분에 끝난 회의, 계엄 해제를 위해 4일 오전 4시 15분께 열린 회의로 보인다.

지난 11일 행정안전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위해 열린 두 차례 국무회의 관련 자료를 대통령 비서실에 요청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대통령비서실이 제출한 자료에는 당시 국무회의가 3일 밤 10시 17분부터 5분간 열렸다는 사실과 참석자, 안건명(비상계엄 선포안)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에 참석해 "회의록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헌재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게는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전자송달과 우편 발송으로 이같은 내용을 동시에 송달했다.

헌재가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수취 거부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수취할지는 미지수다. 인편과 우편, 전자 문서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윤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문서가 아직 송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윤 대통령에게 발송한 문서는 아직 송달 중"이라며 "계속 송달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송달 관련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보낸 탄핵심판 서류는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도착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관저에 보낸 서류도 같은 날 오전 9시 50분께 도착했으나 '경호처 수취 거부'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

우체국은 이날 대통령실과 관저를 다시 방문해 서류 송달을 시도할 예정이다.

한편,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생중계 방송을 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 기일, 변론 기일, 선고 기일은 모두 공개되고 일반인의 방청과 언론 사취제가 가능하다"며 "다만 소란을 방지하고 법정 질서 유지 차원에서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공보관은 이어 "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변론을 생중계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두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모두 생중계됐다.

/정형호 기자 jusbh@kwangju.co.kr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비상계엄 기록물 점검기간 20일까지 하루 연장

행안부, 수방사·경기남부청·특전사 추가 총 18곳... '용산' 점검여부 비공개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기록원은 "12·3 비상계엄 전후로 생산된 국가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 기간을 19일에서 20일로 하루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점검 대상에서 빠졌던 수도방위사령부, 경기남부경찰청, 육군특수전사령부 등 3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이기 위해서다.

이로써 기록물 점검 대상 기관은 대통령기록관이 점검을 주관하는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국가안보실 등 3곳을 포함해 기존 15곳에서 18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12일 서울경찰청을 시작으로 행안부 본청과 국군방첩사령부, 경찰청, 국방부,

육·해·공군본부, 국가정보원, 합동참모본부, 국군 제3707부대 등 11곳에 대한 점검을 17일까지 마쳤다. 20일까지는 정보사령부와 추가된 3곳에 대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국가기록원은 점검 대상 기관을 방문해 지난달 4일부터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까지 한 달간 생산한 문서 등이 제대로 등록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등록된 문서 목록 현황 등의 제출을 요청했다.

총 4개 반, 28명으로 현장 점검반을 구성한 국가기록원 측은 현장에서 점검 대상 기관과 별다른 마찰 없이 기록물 등록 현황 등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대통령비서실 등을 점검 대상에 올

렸던 대통령기록관 측은 현장 점검 일정과 여부 등 일체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이 현장 점검에 제대로 응했는지조차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기록원은 20일 실태 점검을 마무리한 뒤 대통령기록관과 협의해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실태 점검에서 점검 대상 기관이 비상계엄 전후로 생산한 문서를 등록하지 않은 채 은폐할 경우 국가기록원 등이 실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점검 자체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앞서 각 기관이 생산한 문서 등을 빠짐없이 철저히 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바 있고 실태 점검은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며 "점검 대상 기간인 한 달간 각 기관이 생산한 문서 목록만도 분량이 꽤 많아 검토 작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완도 청산도 '한국 관광의 별' 선정

한국관광공사 친환경 콘텐츠 분야

완도 청산도가 '2024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됐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완도 청산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친환경 콘텐츠 분야 '2024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됐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한국관광의 별'은 국내 관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 해 동안 한국 관광 발전에 기여한 관광자원과 기여자를 선정해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 ▲올해의 관광지 ▲신규 관광지 ▲열린 관광지 ▲한국 관광홍보 미디어 외에 ▲융·복합 관광콘텐츠(2) ▲지역 성장 촉진 콘텐츠(2) ▲친환경 관광콘텐츠 ▲동반성장콘텐츠 ▲관광 혁신콘텐츠 등 5개 분야를 신설하고 민간 분야에 대한 시상도 확대해 총 9개 분야 11개 관광자원·기관을 시상하는데, 완도 청산도는 '친환경 관광 콘텐츠' 분야에서 이름을 올렸다.

청산도는 지역사회 소득 창출을 위한 주민 주도형 관광상품 운영, 플로깅 캠페인 등 환경 보호 캠페인 등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완도 청산도는 지난 2007년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에 선정된 이래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느린 삶의 미학을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완도 청산도의 서면제길. <전남도 제공>

관광지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기 TV 드라마 '정년이' 촬영 장소로 알려지면서 젊은 여행객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는 관광지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은 아름다운 해양과 산립 자원이 어우러진 웰니스 관광의 보고"라며 "청산도를 비롯, 전남만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야별 '한국 관광의 별' 11개는 ▲수원화성&행궁동(올해의 관광지) ▲대구 간송미술관(신규 관광지) ▲시흥 갯골생태공원(열린 관광지) ▲제주 해녀의 부엌, 안동 맹개마을(융·복합 관광콘텐츠) ▲강화협동조합 청풍, 동해문화관광재단(지역 성장 촉진 콘텐츠) ▲완도 청산도(친환경 관광콘텐츠) ▲대전 성심당(동반성장콘텐츠) ▲와우패스(관광 혁신콘텐츠) 등이다. EBS 한국기행은 한국 관광홍보 미디어 분야에서 접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탄핵안 가결 후 호남정치 변화

▶1면에서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탄핵 이후에도 지역민의 분노가 표심으로 표출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호남 교두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커졌다.

◇조국혁신당·진보당 전략수정 불가피=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선전을 예고하며 '호남 틈새'를 노린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호남 전략 수정도 불가피해졌다. 조기 대선 과정에 정권 교체에 의해 호남 표심이 결집한다면, 다음 호남지역 지방선거 분위기도 민주당 우세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계엄에 따라 정권 교체에 대한 호남인의 갈망이 더욱 커졌고, '힘 있는 정당'에 대한 학습효과가 생겼다는 점에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호남 교두보는 상당히 흔들릴 전망이다.

앞선 총선에서 '지민비조'라는 전략적 선택 덕분에 국회에 입성한 조국혁신당과 2023년 전북 전주 시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강성희 후보를 당선시킨 진보당은 지난 10·16 영광·곡성 재선거에서도 파란을 일으켰다.

재선거 이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을 앞서면서 이재명 대표가 영광을 4차례 방문하고, 지도부가 호남에 화력을 집중하는 등 민주당의 텃밭을 크게 흔들며 놓았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영광과 곡성에 거주하면

서 선거를 이끌었고, 진보당도 총동원령 속에서 의미있는 선거 결과를 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호남지역 단체장 뿐 아니라 광역·기초의회 진출을 위해 '정치학교' 등을 준비했고, 진보당도 호남에서의 선전을 예고했지만 계엄·탄핵 파문으로 '호남 뿌리 내리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m³/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축적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판 (TMS-600+)
- 판형 산기판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 1997 태림인더스트리(주) 법인설립
- 2011 수출백안발전,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모범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법제자 표창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더스트리(주)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권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신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2차)

당 회사는 2024년 12월 09일 주주총회의 서면결의로써 해산을 결의하고 2024년 12월 10일자로 해산등기를 완료하였으나,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본 공고 게재 익일부턴 2개월 이내 에 그 채권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의됨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삼플러스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거금중앙길 66-2
청산인 이원욱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2차)

당 회사는 2023년 11월 1일자로 해산되었으나, 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2025년 2월 18일까지 당 회사의 청산인의 대리인 주소지로 채권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청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권신고처: 서울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8/14/16층(삼성동, 도심공향타워) 법무법인(유한)로고스

2024년 12월 19일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승인팩스
청산인 이원철
청산인 대리인 법무법인(유한)로고스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